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준우승 징크스' 배선우, 생애 첫 KLPGA 정상

작년 준우승만 세차례... 첫 우승 와이어투 와이어로

배선우(삼천리)가 생애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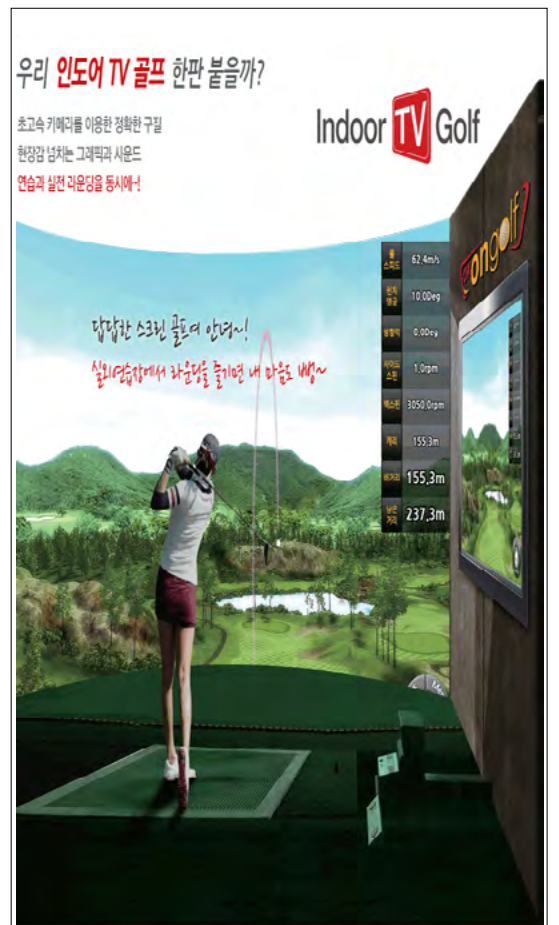
배선우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의 휘닉스프링스CC(파72·645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총 상금 6억원)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기록, 최종합계 20언더파 196타로 2위 이민영2(한화)를 4타 차로 제치고 여유 있게 우승하며 상금 1억 2000만원을 거머쥐었다.

지난 2012년 10월 KLPGA에 입회한 배선우는 2014년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교촌허니 레이디스오픈, MBN 여자오픈,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잇따라 준우승에 머물며 '우승 징크스'에 시달렸다.

하지만 배선우는 올해 처음으로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단독 1위를 놓치지 않은 것을 뜻하는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그간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한을 깨끗하게 씻었다.

1라운드에서 KLPGA 투어 18홀 최소타에 1타 뒤진 10언더파 62타를 뿜어내며 코스 레코드를 갈아치운 배선우는 2라운드에서도 36홀 최소타에 1타 뒤진 130타를 쳤다. 마지막날엔 6타를 더 줄여 54홀 최소타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54홀 최소타는 2013년 MBN·김영주골프 여자오픈 때 김하늘(28·하이트진로)이 세운 197타였다. 또 배선우는 단 한 개의 보기도 없이 3라운드를 마쳐 2008년 우리투자증권 클래식 우승자 신지애(28) 이후 7년 만에 노보기 우승을 달성했다.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은 작년 YTN·볼빅여자오픈에서 장하나(24·비씨카드)가 세운 이후 처음이다.

출처 KLPGA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장수연 시즌 2승



교촌 허니레이디스 오픈, 김해림 우승



SK TELECOM 오픈, 이상희 우승

관련기사 2면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장수연 시즌 2승 챙겨



2016 시즌 아홉 번째 대회인 '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억 4천만 원)이 작년 대비 총상금이 2억 원이 증액되어 지난달 13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수원 컨트리클럽(파72/6,463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장수연 선수가 우승해 시즌 2승째를

기록했다.

장수연은 경기도 용인시 수원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5개로 7언더파를 몰아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로 2위 박소연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뒤졌던 장수연은 마지막 날 몰아치기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지난달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도 역전 우승으로 데뷔 첫 승을 올렸던 장수연은 통산 2승이자 시즌 2승째를 기록하며 우승 상금 1억4천만 원을 받았다.

장수연은 시즌 3승을 올린 박성현에 이어 다승과 상금 부문 2위로 올라섰다.

한편 김보경과 이정민이 합계 7언더파 공동 3위에 올랐고, 박성현은 4언더파 공동 7위로 마쳤다.



교촌 허니 레이디스 김해림 첫 우승

2016시즌 여덟 번째 대회인 '제3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달걀 골퍼' 김해림 선수가 데뷔 9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은 군산 CC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4개로 두 타를 줄였다. 합계 5언더파를 적어낸 김해림은 2위권을 두 타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김해림의 KLPGA 투어 우승은 2007년 프로 데뷔 이후 9년 만이다. 2009년 투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후 무려 130번째 대회 만에 첫 승을 신고한 것이다.

지난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과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등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3언더파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김해림은 5번 홀(파4)에서 샷 이글을 선보이며 전반에만 4타를 줄여 승부를 갈랐다.

두산 매치플레이챔피언십, 박성현 우승

2016시즌 열 번째 대회이자 KLPGA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치러지는 '2016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이 지난달 19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323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장타여왕 박성현 선수가 김지현(25·한화)을 연장 접전 끝에 누르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의 정교한 아이언샷에 밀려 16번 홀까지 두 홀을 뒤졌던 박성현은 17, 18번 홀을 연속 따내며 연장으로 승부를 끌고 갔고,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정상에 올랐다.

시즌 4번째 우승으로 상금 1억2천만 원을 보탠 박성현은 다승 1위와 상금 선두, 대상 포인트 1위 등 각 부문에서 독주를 이어갔다.

한편 투어 99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노린 김지현은 작년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두 번이나 박성현에 이어 준우승에 머물렀다.

비겨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파 5 18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린 데 이어 연장 첫 홀에서도 세컨샷이 그린을 벗어나며 고배를 마셨다.

3~4위전에서는 장수연이 배선우(22·삼천리)를 2홀 차로 제압했다.

출처 KLPGA



SK telecom OPEN 2016 이상희 우승 "트로피 들고 동네 한 바퀴 뛰고 싶다."

이상희(24)가 SK telecom OPEN 2016(총 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2년 9월 '제55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22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앤 리조트 오션코스(파72, 7,20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이상희는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이상희는 2번홀(파4)과 3번홀(파3)을 버디와 보기로 맞바꿨지만 5번홀(파5)과 7번홀(파5), 9번홀(파4)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를 지켜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투어 상금왕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의 추격이 시작됐고, 김경태는 전반 9개홀에서 보기 없이 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이상희 뒤를 바짝 쫓았다.

16번홀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따라오던 김경태도 보기를 범해 1타 차를 유지하면서 18번홀(파5)로 접어들었다. 핀까지 79m에서 58도 웨지로 한 세 번째 샷이 조금 짧아 컵까지 7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뒀다. 이어 1타 차 2위 김경태의 세 번째 샷이 컵 왼쪽 1.5m에 붙었다.

이상희는 "긴장이 됐다. 세 번째 샷이 짧았지만 그리므로 가서 라인을 보는데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위에서 컵까지 검은색 선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이상희의 7m 버디 퍼트는 거짓말처럼 컵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버디 퍼트가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던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직 경태 형의 버디 퍼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경태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고 말했다.

이상희는 경기 후 "3년 8개월 만의 우승이라 첫 우승할 때보다 더 값진 것 같다. 최종일 단독 선두였지만 함께 경기한 박상현, 김경태 선수에게 배우는 자세로 경기에 임했다. 그래서 크게 긴장을 하지 않았다." 고 전한 뒤 "지난 제 35회 GS칼텍스 매경오픈 때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를 했는데 그때 긴장을

많이 해서 내 샷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옷도 SK 브랜드 색상은 붉은색으로 입고 나왔다." 고 말했다.

이번 대회 1라운드 전에 고열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투혼을 발휘하기도 한 이상희는 "지금도 미열이 있다. 하지만 우승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아픔을 느껴지지 않는다." 며 웃으며 말한 뒤 "4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우승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해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지금 당장 우승 트로피를 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싶다. 내가 우승했다는 것을 여겨주기 알고 싶다." 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부활한 골프



골프가 112년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부활한 가운데, 한국골프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리우 올림픽에서 112년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 국가대표는 누가 될까. 현재로서는 여자 박인비와 남자 안병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한국은 리우 올림픽에 남자 2명과 여자 4명, 총 6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들의 최종 선발은 오는 7월 10일까지의 대회 결과를 가지고 발표되는 세계 남녀골프랭킹에 따라 확정된다.

2명이 출전하게 될 남자 국가대표는 10일 현재 세계남자골프랭킹 24위인 안병훈(25)의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 43위 김경태(30)와 68위 이수민(23), 88위 왕정훈(21)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일단 세계 랭킹으로만 보면 김경태가 가장 앞서 있다.

김경태는 올해 시작할 때 세계랭킹 60위였지만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시즌 2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며 43위까지 랭킹을 끌어 올렸다. 하지만 이수민과 왕정훈이 지난달과 이달 들어 유러피언 투어에서 각각 1승과 2승씩을 올리며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날 선전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은 이수민은 올 초만 해도 세계랭킹 245위로 올림픽 출전의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유러피언 투어 우승으로 세계 랭킹이 64위로 뛰어 올라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왕정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주 하산 2

세 트로피에서 두 차례의 연장전 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 우승이라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한 왕정훈은 지난달 15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인근 섬나라 모리셔스의 포시즌스 GC(파72-7401야드)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왕정훈은 세계랭킹 169위로 올해 시즌을 시작했지만 유러피언 투어 2연승을 거두며 세계랭킹 70위권 내에 자리하며 올림픽 출전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안병훈을 제외하고는 PGA 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세계랭킹 포인트 획득에서 PGA 투어 다음으로 높은 유러피언 투어에서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한 이수민과 왕정훈은 향후 유러피언 투어에 계속 나설 수 있어 랭킹을 끌어올리기가 김경태 보다는 유리해 보인다. 세계여자골프랭킹 15위 내에 4명 이상의 선수가포진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 4명의 여자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5월10일 현재 세계랭킹 2위인 박인비(28)와 6위 양희영(27), 7위 김세영(23), 8위 전인지(22)가 출전 선수 4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9위 장하나(24), 11위 유소연(26), 13위 김효주(21), 15위 이보미(28), 18위 최나연(29)이 예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중 박인비만이 출전을 거의 확정지은 상태고, 나머지 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매주 LPGA 투어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 랭킹이 바뀌기 때문이다. 세계랭킹 포인트 비중이 가장 큰 LPGA 투어 대회는 앞으로 8개가 남아있어 이 8개 대회 성적으로 출전선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까지 투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한국 선수들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맞춤형 체력관리, 피로회복, 부상예방 및 균형적인 영양섭취 등과 같은 컨디션 관리에 크게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7월 11일 이후 1개월여 만에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시차적응과 현지에서의 컨디션 관리에 중점을 뒀야 한다. 대회 기간 컨디션에 따라 성적의 기복이 심한 골프 경기의 특성상, 올림픽 출전을 확정하고 오히려 컨디션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현지에서의 코스 매니지먼트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우올림픽 골프 코스(바라 다 치추카골프장)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 코스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며, 넓지 않은 페어웨이에 많은 벙커들이 그린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선수들로 하여금 정교한 플레이를 요구한다. 한국여자선수들 중 장하나와 김세영이 평균 스코어에서 공동 1위(69.5타), 전인지가 3위(70타)를 유지하고 있으며, 페어웨이 적중률과 그린 적중률에서도 국내선수들이 상위 랭

크돼 있기 때문에 코스로 인한 경기력의 난조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는 남녀 개인전만 열리고, 선수들도 올림픽 직전까지 투어 일정으로 인해 공식 연습라운드를 충분히 겪어보지 못한 채 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번 골프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된 최경주, 박세리 코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경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승을 올렸고, 2015년 프레지던트 초컬에서 인터내셔널팀 수석 부단장을 맡아 선전했다. LPGA 투어에서 통산 25승을 거둔 박세리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는 선수로서 한국선수들에게 경기력과 정신적 측면에서 멘토로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일본, 호주, 미국 등도 유명 선수 출신이 지도자로 발탁돼 리우올림픽에 나선다. 지도자들 사이의 기 싸움 또한 매우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성적을 떠나 특별한 의미가 있고, 선수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된다. 이러한 올림픽에서 메달의 색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112년 만에 부활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개최되는 골프 경기에 한국선수들, 특히 여자선수들이 4명이나 출전해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대견한가를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예술가가 사랑한 그곳 '남프랑스 프로방스'

France



여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낭만 여행이 있다. 바로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지중해 연안 남프랑스 여행이다. 남프랑스는 연인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두루 갖춘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낯선 여행지에서 반 고흐, 생폴드방스, 샤갈, 세잔 등 술한 명소를 찾아 예술가의 영감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오래된 중세풍의 건축물을 돌아보며 웅장한 감동도 맛본다. 그림 같은 마을, 드넓은 지중해 해변에서의 여유와 평화도 즐긴다.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남프랑스 여행의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자료제공 꿈꾸는여행사

기암괴석 즐비한 칼랑크가 포인트
 마르세유의 박물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 미술까지 조명해볼 수 있는 컬렉션이 소장돼 있어 가볼 만하다. 다수의 갤러리에서 재능 있는 유명 아티스트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마르세유 구항구에서 30여분 떨어진 칼랑크는 독특한 지형의 자연 국립공원으로 유명하다.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한 거대한 기암의 산과 바다가 묘한 조화를 보인다.

지중해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니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이다. 니스는 코트다쥐르의 거점 역할을 하는 가장 크고 변화한 곳이다.

프롬나드데장글레라는 해변도로를 따라 가면 화려한 호텔들이 늘어서 있다. 해안도로는 약 3.5km. 시원하게 뽀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영국인의 산책로'라고도 불린다. 구시가지는 더욱더 매력적이다. 거리 골목에는 크고 작은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하다. 산책 뒤에는 꼭 커피 한 잔 즐겨보자.

구시가지의 낭만 지중해 휴양지 니스

구시가지 해안의 성에서는 니스 시가지와 지중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모나코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가볼 만하다. 세계

3대 소국 중 하나인 모나코는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결혼식을 올린 모나코 성당과 모나코 왕궁이 유명하다.

남프랑스 주변 작은 소도시를 둘러보는 재미도 남다르다. 절벽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 에즈는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인상파 화가들이 사랑했던 중세 시가지 생폴드방스의 전경,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도 꼽히는 고르드는 돌로 된 집과 돌을 쌓아 만든 담벼락이 인상적이다. 그 밖에 황토빛으로 물든 유서 깊은 작은 마을 루시옹과 아비뇽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고딕양식의 교황청 팔레 데파프와 베네제 목사가 일생을 바쳐 지은 생베네제 다리가 자리한다. 고흐가 사랑한 아를에서는 고흐의 작품 '방의 카페 테라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고흐 카페도 만나볼 수 있다.

반 고흐가 사랑한 도시 아를
 프로방스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도시인 마르세유는 우뚝 솟은 산 정상에 아름다운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오랜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산으로 2013년 유럽 문화 중심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르세유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아를은 반 고흐가 사랑했던 곳. 19세기 반 고흐가 머물며 작품

300여 점을 그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반 고흐 산책로와 강변, 카페 거리를 거닐어 보고 원형 경기장, 생 트로핑 성당, 포룸 광장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작은 도시에서 마주한 예술의 향기
 파리, 로마 등 대도시 대신 유럽의 작은 도시나 마을을 찾는 여행이 유행이다. 이른바 소도시 여행. 눈도장 찢듯 돌아다니는 기존 패키지여행과는 다르다. 한두 곳을 집중적으로 보고 즐기는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여행이다. 가장 핫한 여행 트렌

다.
 프랑스 남부 해안 코트다쥐르 지방은 스페인 코스타델솔 등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화제로 유명한 칸과 샤갈, 피카소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니스 등 유럽 여행의 진수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풍부한 매력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겨울에도 기후가 온화하고 봄가을에는 날씨가 쾌적해 연중 여행하기에 좋다.





샤갈이 사랑한 생폴드방스

남프랑스 여행의 관문은 국제공항이 있는 니스. 영국인의 휴양지로 유명한 프롬나드데장글레는 니스를 대표하는 휴양지다. 해변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화려한 호텔과 카페, 레스토랑은 그 유명세를 증명한다. 마세나 광장, 파이옹 산책로, 구시가지와 노천시장도 볼거리다. 니스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생폴드방스도 만나볼 수 있다.

생폴드방스는 14세기 후반에 세워진 성벽과 생미셀 뒤뤼의 오래된 교회, 언덕 위의 성 그리고 중세 작은 골목길과 상점들, 갤러리가 많다. 1920년대부터 화가들이 생폴드방스의 자연의 색상, 풍요로움과 빛에 매료되어 평화로운 프로방스의 이 마을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샤갈이 97세 나이로 삶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 20년을 보낸 제2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그라스는 니스에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1시간, 칸에서는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도시다. 이곳은 18세기 말부터 향수산업이 번성한 곳. 프랑스 향수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향수산업의 수도로 통한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천연 아로마의 3분 2 이상을 차지한다. 시내에 있는 국제향수박물관은 필수코스다. 최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영화제의 도시 칸

칸은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영화제'가 펼쳐지는 곳이다. 칸 기차역에서부터 영화제의 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플랫폼에 영화 포스터들이 즐비하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영화를 만든 루미에르 형제의 대형 사진도 붙어 있다. 칸의 도로에는 영화제의 상징인 종려나무가 늘어서 있어 운치를 더해준다. 부티크 숍들로 채워진 바닷가 크루아제트 거리는 니스의 해변보다는 한적



하고 여유롭다. 해변 끝에 들어선 국제회의장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다. 길 한편에서 유명 스타들의 핸드프린팅을 찾는 것도 흥미롭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생트로페도 빼놓을 수 없다. 생트로페는 연간 6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로 유명하다. 해외 유명 인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톰 크루즈, 비윤세, 앤젤리나 졸리 등도 이곳을 찾아 휴양을 즐긴다고. 구시가지의 좁은 도로, 항구와 광장, 프로방스 스타일의 시장 등이 주요 볼거리다. 특히 연한 베이지 색상의 건물과 지중해에 떠 있는 초호화 유람선과 요트는 바라만 봐도 호사스러움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진다.



이세창, 배우에서 카레이서 그리고 화장품 사업가 무한변신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에서 카레이서로 변신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화장품 사업가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변신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전우치처럼 인생의 도를 깨달은 듯한 여유와 열정과 즐거움이 느껴지기 때문. 그 주인공은 바로 이세창이다.

카레이서에서 다시 배우로

전우치라는 역할로 '옥중화'에 출연 중인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화장품 사업가로의 변신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는 화장품회사 '애스터(ASTER)'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연기와 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옥중화’는 허준, 대장금, 마의 등을 연출한 이병훈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감독님은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 숨 쉬었던 민초들의 직업을 알리는 데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조선 중종(中宗)조 때의 이야기로 토정비결을 지은 이지암 선생이나 당시 활동했던 임궽정도 등장합니다. ‘옥중에서 피는 꽃(獄中花)’이란 제목과 같이 주인공 옥녀는 여러 스승들의 도움으로 초인이 되는데 무술, 중국어를 비롯해 못하는 게 없는 변호사로 분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제가 맡은 캐릭터가 밝고 명량한 편이어서 요즘 밝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가 화장품 사업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이전 직장인 '뷰티시그널' 부대표로 활동하고 부터이다. 광고모델로 시작해 여러 업무를 맡게 돼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현재 '애스터'로 자리를 옮겨 그 꿈을 이어가고 있다.

“애스터는 원래 엔터테인먼트를 모회사로 갖고 있어요. 저는 마케팅 본부장으로 있다가 경험을 살려 화장품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투자사이기에 화장품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제품 출시에 P.P.L이나 중국진출이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죠.”

배우로 시작해 카레이서로 전업하는가 싶더니 화장품 사업까지,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가 말하는 '애스터'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배우들은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얘기할 때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작사에서 배우를 써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지요. 아주 유명한 배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연기자들은 작품을 연속으로 맡길 기대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저는 제작사의 투자사이기 때문에 작품에 들어가기보다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작품에 출연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임원에게 감찰도 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게는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국진출을 위한 '레어라레(RARE rare)'
'애스터'는 한방, 자연화장품에 발효 기술을 적용한 발효화장품으로 멀티크

림, 버블클렌징, 미스트, 썬크림을 갖춘 기초화장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작년 말 '자라유인텐시브크림'을 론칭했지만 별도의 광고나 홍보는 하지 않았다. 좋은 제품은 소비자가 먼저 알아보듯이 제품력과 기능성으로 어필해 나가고 있다.

“화장품에서 피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물이거든요. 자라기름은 수분 지속성을 높혀 주며 보양식으로 유명해 피부기력을 회복해 주는 효능이 있어요. 중국시장은 전통적으로 동물성 재료가 인기인데 건조한 날씨 탓에 수분보충크림이 강세이며, 귀빈 대접 시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가 용봉탕일 만큼 친숙합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이 화장품 재료도 유행이 있습니다. 최근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어 예전에는 휴가 나온 군인들이 집에 가면 사복으로 갈아입기부터 했지만 요즘은 군복



을 입고 다닐 정도로 유행이란 참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현재 '애스터'는 '레어라레(RARE rare)'로 브랜드 명을 리뉴얼 중이다. 중국진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유사 상표로 인해 등록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제품군도 다양화해 주 연령층을 낮추고 저가형 제품들도 구비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초도물량 5,000개가 완판돼 추가발주가 들어간 상태인데 매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브랜드로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이후 스포츠라인이나 골프 관련 화장품이 나오면 제가 모델을 맡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스코리아 봉사단체인 '녹원회'의 자선 바자회 협찬도 했었습니다.”
연기경력 30년 가까이 된 그도 이제 40대 후반이다. 촬영으로 인해 피곤해도 연예인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에게 여

름철 피부관리 팁을 물었다.

“배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안입니다. 사극을 할 때는 메이크업도 강하고 수업을 본드로 붙이는데 어떤 연기자는 흥터나 곰보도 그려서 촬영 후에는 선후배 관계없이 모두 세안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세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인생 레이싱

이쯤 되면 연기와 병행이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들도 많이 걱정해 준다고 한다. 피곤한 와중에도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그가 새삼 고마웠다.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얘기가 잘 되면 ‘옥중화’가 끝나자마자 ‘겜블러’라는 작품에 합류하게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고 싶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또렷한 이목구비의 잘 생긴 얼굴이지만 그동안 맡았던 배역이 한정적이라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그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배우로서 고착화돼 가는 이미지에 관한 두려움도 적지 않다.

최근 그가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아저씨’로 냉혹한 킬러역할의 대만배우를 눈여겨 보았다고 한다. 말보다는 연기로 이야기 했던 역할이다.

“배우라면 연기변신을 통해 저 사람이 저런 역할도 가능하네?란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내공을 쌓다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직의 보스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역할도 안 해보면 연기의 범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밑바닥부터 해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이번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극을 택한 건 어렵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발성이 트이고 연기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대사를 하면서 호흡을 어떻게 섞는지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사극을 많이 했던 선배들은 고함을 질러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연예인 카레이서로 더 잘 알려진 그에게

요즘 차는 안타시냐고 물었다. 그가 14년 간 카레이싱에 전념하며 선수와 감독으로써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배우보다는 카레이서가 더 익숙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레이싱장에서 시합하는 건 은퇴했지만 차는 요즘도 탑니다. 차가 좋아서 레이싱을 했던거지 레이싱이 좋아서 차를 탔던 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차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경기장은 격하고 일반 도로는 오밀조밀한 맛이 있죠. 골프로 보면 드라이버와 숏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이싱카의 수평계를 보면 무게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레이싱 중 운전자는 떠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차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으로 느끼면서 제어를 해야 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 다음 턴이 쉬운지 어려운지가 결정 됩니다. 작은 차이에도 승패가 갈리기에 차에 무게가 실렸을 때 언제까지 지지하는가에 따라 다른 장비들을 튜닝하는 게 노하우예요. 골프에서 헤드의 무게를 느끼며 스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은 택시를 타도 기사 스타일을 분석한다는 그. 브레이크의 힘을 100으로 볼 때 차량을 스캔해 분석하고 운전 스타일에 따라 어떤 타이어를 쓰고 있는가를 예측하고 확인해 보면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른 바 고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차뿐만이 아닌 인생의 고수가 된 듯 했다.

“힐링은 지금까지 못 느끼던 것들을 깨닫는 거라 생각해요. 스쿠버다이빙을 좋아하는데 주로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곳이 물속도 깨끗하고 자연도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죠. 여의치 않으면 골프연습장에 가는데 많은 생각을 잊어버리고 공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레이싱으로 단련돼 골프는 잘 못하지만 멘탈이 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인생, 레이싱, 골프의 공통점은 멘탈이 무너지면 진다는 점입니다.”



레이싱으로 단련돼 골프는 잘 못하지만 멘탈이 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인생, 레이싱, 골프의 공통점은 멘탈이 무너지면 진다는 점입니다



나이키 골프, '나이키 에어 줌 90 IT' 골프화 출시

나이키 골프가 지난달 20일 AIR MAX 90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나이키 에어 줌 90 IT(Nike Air Zoom 90 INTEGRATED TRACTION)'를 출시했다.

AIR MAX 90은 나이키 디자이너 킵커 헛필드(Tinker Hatfield's)의 독창성이 담긴 나이키의 아이코닉 모델로 로리 맥길로이를 비롯한 많은 골프 선수들이 선호하는 신발이자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전한 모델이기도 하다. 나이키 풋웨어 디자이너들은 골프화에도 AIR MAX 90의 디자인과 골프 스윙에 적합한 나이키 인티그레이티드 트랙션(Nike Integrated Traction) 밑창을 적용시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스타일의 나이키 에어 줌 90 IT이 탄생했다.

로리 맥길로이는 "일상 생활에서 AIR MAX 시리즈를 굉장히 즐겨 신어서 나이키 에어 줌 90 IT를 필드 밖에서 착용해도 누구도 골프화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며 "AIR MAX가 골프화로 부활하는 것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 이상의 의미로 골프 코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다. 시원하고 편한 착용감은 물론 코스에서 필수 요소인 접지력과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밝히며 지난 주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로리 맥길로이가 나이키 에어 줌 90 IT를 처음 선보였다.



브리지스톤골프, 2016년 PGA 메이저 컬렉션 출시!

석교상사(대표이사 이민기)는 일본 브리지스톤스포츠의 PGA투어 마스터즈 토너먼트, US오픈, 디오픈 챔피언십 등 3종의 메이저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PGA 메이저 대회를 형상화한 'PGA 메이저 컬렉션'이며 지난 4월 가장 먼저 마스터즈오픈 출시되어 브리지스톤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PGA 메이저 컬렉션은 세가지 테마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대회 이미지에 맞는 옐로우, 네이비, 레드의 3가지 포인트 컬러로 감각적이고 다양한 용품을 제안한다.

세가지 테마 중 첫 번째는 마스터즈 토너먼트

를 모티브로 하여 그린과 옐로우 컬러를 조합을 베이스로 마스터즈의 상징인 아젤리아 꽃을 포인트 했다. 두 번째로는 6월에 개최하는 US오픈을 컨셉으로 하여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별 무늬 자수를 아낌없이 사용한 상품이다. 세 번째로는 7월에 개최하는 디오픈 챔피언십 컨셉으로 개최지인 영국의 국기 '유니온잭'을 모티브로 한 상품이며 포인트로는 디오픈 챔피언십의 또 다른 대회 타이틀인 브리티시오픈의 첫 글자를 딴 'B'를 포인트 했다. 2016년 브리지스톤골프 PGA 메이저 컬렉션은 각 대회에 출전하는 매트 쿠처, 브랜트 스네데커 등 브리지스톤골프 소속 선수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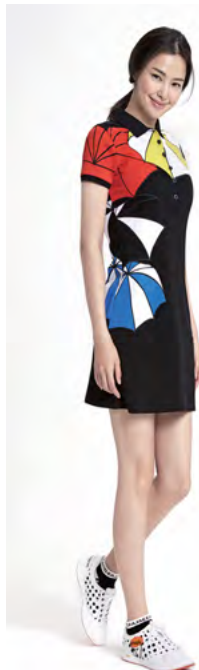


까스텔바작, '파라솔 모티브 원피스' 출시

패션그룹형지의 프랑스 명품 골프웨어 '까스텔바작(www.castelbajackorea.com)'이 뜨거운 여름 더위에 대비해 바캉스 필드룩 연출에 제격인 2016 S/S 시즌 신제품 '파라솔 모티브 원피스'를 출시한다.

까스텔바작의 '파라솔 모티브 원피스'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원피스형 골프웨어로 피케이 원피스에 파라솔과 해변을 모티브로 한 아트워크를 배치해 바캉스 무드를 살렸다. 파라솔 아트워크에 적용된 레드, 블루, 옐로우 등 까스텔바작 특유의 비비드한 컬러감이 경쾌함을 선사한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골프 라운딩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까스텔바작의 '파라솔 모티브 원피스'는 100% 면 소재를 적용해 부드러운 착용감이 특징이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 필드에서 장시간 라운딩을 진행하더라도 땀 흡수가 빨라 시원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아크테릭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GORE-TEX 재킷

약천후 속에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달리기 를 마다하지 않는 산악/트레일 러너. 아크테릭스가 그 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해법이 될 노반 SL 후디를 출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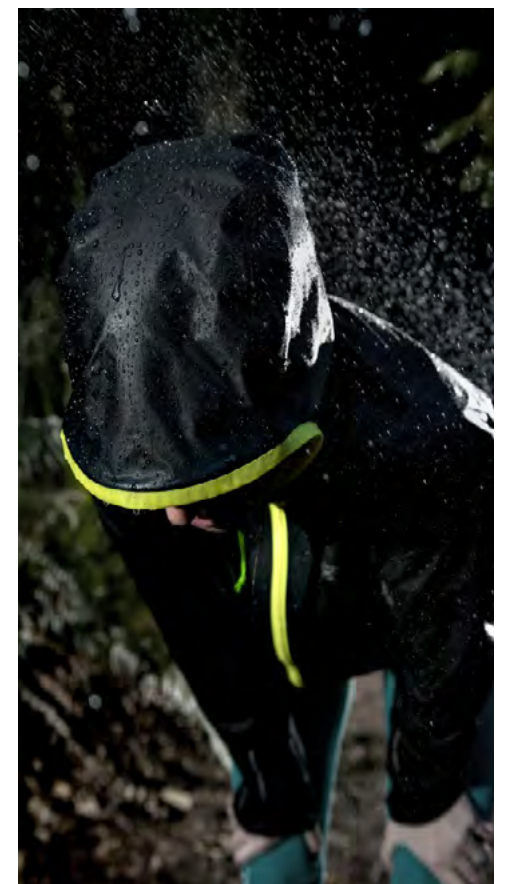
노반 SL 후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GORE-TEX® 재킷'이다. 무게는 불과 107g(여성 용 M 사이즈 기준)이다. 옷 전체를 말아 넣는 스테프 색을 포함해도 110g으로 사과(약 200~250g)나 휴대 폰(약 150g 내외)보다도 훨씬 가볍다.

초경량의 비결은 WL 고어가 새롭게 개발한 최신 소재 GORE-TEX® PBS 기술이다. 이전까지 모든 GORE-TEX® 의류는 방수-투습 기능의 핵심인 멤브레인 필름을 보호하기 위해 DWR 발수 처리가 된 옷의 겉감이 필요했다.

이에 반해 GORE-TEX® PBS는 겉감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렸다. PBS란 Permanent Beading Surface의 약자로, 멤브레인 필름 표면에 영구적인 발수력을 더한 기술을 뜻한다. 멤브레인이 옷의 겉감 역할까지 해 내면서 자연스럽게 옷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효과는 비단 경량화에서 그치지 않는다. 멤브레인 필름을 덮고 있던 겉감이 없어지면서 땀과 열을 옷 밖으로 배출하는 투습력은 한층 극대화되었다. 또한 영구적인 발수 기능으로 아무리 비를 많이 맞은 뒤라도 몇 번 터는 것만으로 옷 표면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휴대성도 향상되었다. 산악 달리기 등 고강도 유산소 활동에서 더욱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결과 명실상부 현존하는 제품 가운데 가장 가벼우면서도 방수-방풍-투습력을 모두 겸비한 GORE-TEX® 재킷으로 태어났다. 특히 노반 SL 후디는 전량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정 소량 생산되었으며, 국내에는 단 35장만이 한정 출시됐다. 전국 아크테릭스 직영 6개점(종로점, 일산점, 북한산성점, 도봉산점, 대구수성점, 전주점)에서만 판매되며 가격은 49만원이다.



청각장애인 후원을 위한 온정의 손길 모아져

제12회 사랑의 달팽이 자선골프대회 성료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확산과 후원을 위한 '제12회 사랑의 달팽이 자선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청각장애인 후원단체인 사랑의달팽이(회장 : 김민자)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더 스타 휴 CC'에서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언론계, 연예계, 스포츠계 등의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자선행사를 진행 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달팽이 자선골프대회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심각성과 재

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애정 함양을 위해 매년 5월에 개최되며, 올해로 12회를 맞고 있다.

이번 행사의 기부금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공와우 수술과 보청기 지원에 사용되고 난청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매년 5억원의 후원금을 선천적인 청각장애 아동들의 인공와우 수술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UBS증권, BGF리테일, KCC오토그룹, MBC, 교보생명, 지엔리사운드 코리아,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아메바컬쳐, 엠스파트너스, 아람코코리아, 법무법인강남, SK하이닉스, 메레세데스벤츠코리아, 국민은행, 코암로타리클럽, 강원랜드복지재단, 데니스골프, KPX문화재단, 인왕산기 등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

그 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도 다수로 참여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후원에 사회적계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의달팽이 김민자 회장은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의 소리 찾기에 따뜻한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 개선과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Kongolf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너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너를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너를 측정하고 그 스피너를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매킹볼의 스피너를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량에 따른 모든 구질을 표현합니다.
- 페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뽀른 피치 런, 러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숏게임도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 값이싼 깎이는 대로 풀리면 '뽀른'는 대로 찌릿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며 타석에 붙출된 센서가 없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착유타석 검출)
- 퍼팅 연습 시 런치앵글, 방향각, 사이드 스핀을 분석하여 최적의 퍼팅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ing-Halo 엔진

- 실제 사친처럼 느껴지는 첨단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공정한 러프의 질감과 헤비러프의 깊은 풀까지 자연스럽게 렌더링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사공이 가능하며 라운드 스크린도 지원합니다.

N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로봇공학, 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력, 바람의 저항, 풀의 저항, 지공의 흔들계수, 지형의 단상계수 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퍼팅한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볼이 스피너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안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상황별로 어떤 샷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세요.

OK온골프 네이처

맞짱 대결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을 게임 안에서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게임.

★ 기능

- 원격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대방과 1:1 대결 진행되고 함께 라운딩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실시간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만 현재 지원 가능)
- 대전상대 영상 지원(상대가 모두 카메라가 있을 경우)
- 맞짱대결 플레이어
 -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언제 어디서든 맞짱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할 하게 되면 동영상과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xxxx 입니다.



(맞짱 대결 상대)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



(이모티콘 설정)



(맞짱 연동)

★ 게임 참가 방법

1 게임 메뉴 '동시타입' 선택



2 1 VS 1 맞짱대결



★ 앱 채팅

1 OK온골프 앱 메뉴에서 '골프친구' 선택



2 맞짱대결에서 유저 선택하여 채팅



- 게임 티샷 후 자동친구 추가되어 친구 등록 가능
- 게임 동안 플레이어 자동친구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앱, 홈페이지' 환경설정에서 '해제' 로 변경

3 앱에서 채팅 시 이모티콘, 상용구는 상대 게임화면에 표시됨.





(주)오케이온골프와 하나골프가 제휴!
오케이온골프 특가몰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mall.okongolf.co.kr

지금 슈퍼최저가 상품을 만나보세요 →

연습과 실전 라운딩을 동시에!

인도어 TV골프 시스템

▶▶ 자세히 보기

정확한 구질
- 2대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백스핀, 사이드 스핀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구질을 구현합니다.


골프연습의 새로운 기준 제시
- 백스핀량, 사이드 스핀량, 발사각도, 방향각등을 점검하며 연습하기 때문에 정밀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인도어 TV 골프

- 1** 실제 라운딩과 연습을 동시에 혼용하는 **최상의 골프 연습 시스템**
- 2** 정확한 구질과 편리한 **스윙분석**
- 3** 실제 코스에서 플레이 하는 듯한 **사실감**
- 4** 세밀한 구질구현으로 **몰입감 최고**
- 5** 초고속 카메라 **센서장착**
- 6** 실시간 밤낮 구분없이 **플레이 가능**
- 7** 스코린골프를 싫어 했던 **프로와 싱글 골퍼들도 대만족!**


인도어 TV 골프 구성



초고속 카메라 센서 장착




55인치 대형TV




오케이온골프 네이처 프로그램

1 초고속 카메라 센서 장착



정확한 구질
2대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백스핀, 사이드 스핀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구질을 구현합니다. 실제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플레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골프연습의 새로운 기준 제시
백스핀량, 사이드 스핀량, 발사 각도, 방향각등을 점검하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정밀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2 55인치 대형 TV

-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코스를 확인하여 어떤 샷을 구사할 지 결정
- 티샷을 하여 실제로 볼이 날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
- 대형 모니터를 통해 코스에서 사실적인 구질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
- 코스 환경에 따라서 실제 코스에 나온 것과 똑같이 플레이
- 실제 날아가는 볼을 보면서 플레이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실제 스코린보다 훨씬 높습니다.

3 오케이온골프 네이처 프로그램

- 오케이온골프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자체 개발 그래픽엔진을 사용하여 국내, 해외, 가상골프장을 구현
- 나무와 도로 등에 충돌계수를 반영하여 훅이나 슬라이스를 구사해야만 탈출 가능
- 네임, 볼구질, 남은거리, 감쇠율등 완벽한 음성 서비스 지원

실제 사진처럼 뛰어난 그래픽 효과
풍성한 러프, 실랑거리리는 물결, 뛰어난 현장 묘사,
사이드 스핀과 백스핀량에 따라 정확한 구질 구현
백스핀 량에 따라 볼의 비거리와 런이 달라짐

제 8 회,

위클리 미션

이벤트 대회

대회 기간 2016년 04월 04일 ~ 07월 03일

위클리 미션 이벤트 대회
출연원상, 핸디 최저타상, 신기록오상, 최다참가상 등 16개의 시상으로 매주 50만 포인트를 드리는 이벤트 대회입니다.

게임 진행률

- 참가비: 1,000p
- 대회엔드캡: 우수승자(12), 준우수승자(11)
- 유의 사항: - 게임영상 미준제시 시상 제외
- 2개 계정이상 계정, 핸디조정시 계정 삭제
- 인디/상급/스기 수상자(1,2,3등)인 경우 동영상 오면 영상
- 플레이어등급은 투이프로로 설정



Weekly Mission

슬라이스 교정

골프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90%이상은 초보시절 슬라이스로 고생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슬라이스는 골프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잡하게 접근한다면 복잡해 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슬라이스의 원인은 임팩트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것이다. 공의 구질이 휘지는 않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똑바로 가는 경우는 푸쉬라 하며 슬라이스와는 다른 문제이다. 이번 시간은 슬라이스의 원인과 교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드레스때 부터 그립을 잘못 잡았거나 백스윙시 페이스가 열리는 방향으로 코킹을 잘못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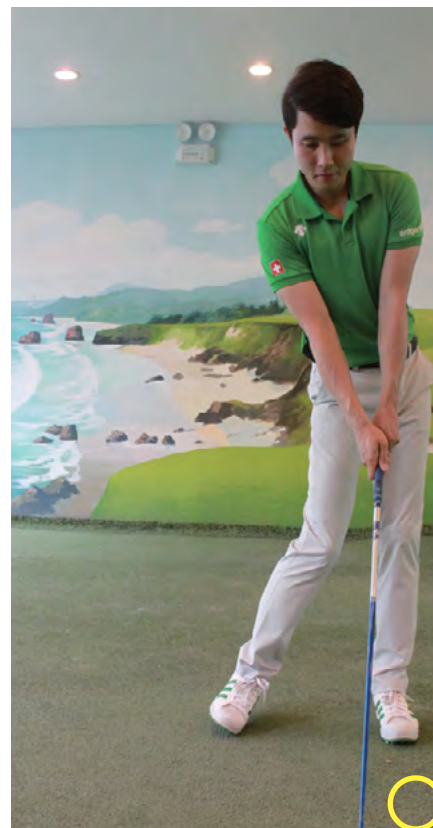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스퀘어 그립을 취하는 골퍼라면 그립만 바뀌도 슬라이스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립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면 릴리스를 좀 더 쉽게 진행시켜 주어 임팩트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 상태로 만들어 준다.

※ 어드레스때 왼손등이 확실하게 보이도록 스트롱하게 잡는다. (오른손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 돌린다)



거울로 백스윙탑 위치에서 손목꺾임 방향을 확인 후 수정하여 임팩트에서 페이스의 열림을 최소화 한다.

※ 코킹시 왼손등이 편평하도록 체크한다.(오른손은 쟁반을 받쳐든 느낌이다)



다운스윙부터 임팩트 이전에 배가 내밀어지며 상체가 먼저 오픈되는 경우

다운스윙시 헤드업이 되거나 과도한 체중이동과 하체사용으로 인해 상체까지 같이 오픈되어 상체가 열리는 속도보다 클럽헤드가 늦게 따라오면 페이스가 오픈되어 임팩트가 이루어진다.



유효탁 프로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회원
송실대학교 생활체육과 졸업
인천광역시골프협회 주니어대회
개인전, 단체전 다수 입상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티칭프로

청정공기와 탄산약수가 어우러진 포레스트힐C.C



운악산을 끼고 있는 포레스트힐CC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색깔 옷을 입는다. 뿐 아니라 코스 주변에는 탄산온천수도 흐른다. 바위틈에서 솟는 물이라 철분이 많고 미네랄도 풍부하다. 수질 검사결과 국내 최고의 초정 약수임을 인정받았다. 서울 시내는 연일 30도가 넘어서지만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는 평균 기온이 시내보다 5도가 낮다. 미세먼지와 오염된 공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청정지역이다.



원칙(原則)과 정도(征途)가 최고의 가치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레스트힐CC'는 80여만 평의 광활한 대지에 펼쳐지는 27홀의 코스로 타 골프장과 다른 차별성과 품격을 갖춰 운영 중인 자연친화 골프장이다. '힐링' 골프장이 대세인 요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접근성으로 무궁해 골프장이라는 명성을 얻은 '포레스트힐'은 원칙(原則)과 정도(征途)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흥택선 회장의 일터다. '늘 깨어 있으라. 그것이 경쟁력이다.' 도전하고 실천하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영을 한지 육년, 주변의 입소문이 무서우리만치 빠른 도약을 한 포레스트힐CC. 수많은 골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나누고되돌려준다'는 착한 골프장으로 정평이 나왔다. 이에 2년 전 개장 3주년을 맞아 골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그린은 그대로 두고 '써브 그린'을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전략적이며 도전적인 코스로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는데 최근 완성된 써브 그린을 두고 골퍼들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포천, 파주, 고양 근처의 많은 골퍼 마니아들에게 후한 평을 얻고 있다. 락코스 중 1번 홀을 비롯한 2~6번 홀과 7번(샷홀)홀은 상상이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힐링'의 장소로 유명하다.

흥택선 회장 "최고의 그린을 제공한다"
흥택선 회장은 "변화무쌍한 기후와 열대 현상에도 끄떡없도록 전천후 코스와 최고의 그린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대를 증폭시켰다. 또한 "코스 전문업체인 '대정엔지니어링'이 직접 관리를 할 것이며, 현재도 내장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 더 많은 시설 확충과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2010년 전반적으로 전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픈하게 되어 주변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단단히 움켜잡은 키를 놓지 않고 끝까지 폭풍을 헤쳐 나온 흥택선 회장의 경영마인드가 드디어 그 빛을 발한 것이다. 현재, '포레스트힐'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시설과 코스 및 부대시설면에서 내장객들로부터 A+를 받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인내와 의지가 단단히 한 몫 했으리라 짐작된다. 서비스에서도 질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대중화 골프에 앞장서왔다. 작지만 내실 있는 경영이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골프장의 문턱을 낮추어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쯤 되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힐·락·포레스트의 난이도 높은 코스

'포레스트힐CC'의 코스는 기존의 퍼블릭코스처럼 만만하지 않다. 한 코스마다 다른 전략을 세워야만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코스다. 그래서 프로골퍼들도 자주 찾는 만큼 인기가 좋으며, 힐·락·포레스트 등 3개 코스 길이는 웬만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뒤지지 않을 정도라 할 수 있다. '힐' 코스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조성돼 흥미를 더했고, '락' 코스는 넓은 페어웨이에 호쾌한 맛이 특징이다. 특히 마지막 힐 코스 9번 홀(파5)은 640m로 무척 길다. 그래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면 공이 레이드티에 떨어지기도 하고, 해저드를 건너지 못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이처럼 퍼블릭이라고 해서 적당히 쉽게 치면 될 것이라 만만히 보았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이처럼 전 코스 모두에 뚜렷한 개성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인위적 코스를 지양하고 라운드의 가치를 극대화 시켰고, 코스 주변에 탄산온천수가 나오고 있어 골퍼들의 환호를 사고 있다. 아울러 8차선 도로 확장으로 강남과 강북 등에서 골프장과의 거리가 약 30분 정도 단축되었으며, '제2자유로'와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되면 지역 골퍼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골퍼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골프장으로 완벽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폭스바겐, 골프 GTI 탄생 40주년 기념 GTI 미팅 개최



폭스바겐은 오스트리아 비르테제 호수에서 전세계 폭스바겐 팬들을 위한 GTI 미팅을 개최하고, 골프 GTI 탄생 40주년을 기념한 4가지의 특별 모델을 공개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GTI 미팅은 지난 1981년 5월 오스트리아 비르테제 호수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5월 폭스바겐 팬을 위해 열리는 축제이다.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테크니션의 컨셉카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견습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기반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심 받기도 한다. 이번 GTI 미팅에서는 골프 GTI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신형 골프 GTI

클럽스포츠 S, 레이싱 카 골프 GTI TCR를 비롯해 폭스바겐 견습생들의 프로젝트 모델인 골프 GTI 하트비트(Golf GTI Heartbeat), 골프 R 바리안트 퍼포먼스 35(Golf R Variant Performance 35) 등 총 4개의 모델이 공개됐다. 비르테제 GTI 2016팀의 대변인이자 미래 자동차 메카트로닉 테크니션인 요나스 로흐버크(Jonas Rohrbeck)는 “골프 GTI는 단순히 ‘차’ 그 이상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특별한 차”라며, “폭스바겐과 독일의 디자인 회사 시텍크 시츠테크닉(Sitech Sitztechnik)의 견습생들이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

의적인 아이디어에 맞춰 특별한 골프 GTI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신형 골프 GTI 클럽스포츠 S는 폭스바겐의 골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양산버전으로, 310마력(228 kW)의 성능을 자랑한다. 특히 신형 골프 GTI 클럽스포츠 S는 폭스바겐 모터스포츠가 TCR 국제 시리즈에서 사용한 330마력(243 kW)의 Golf GTI TCR 엔진 유전자와 전격 변경된 새시를 적용해 독일 뉘르브링의 북쪽 코스에서 7:49:21 만에 랩을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며 4륜구동 양산차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330마력의 레이싱카 골프 GTI TCR 또한 함께 공개했으며, 최초의 골프 GTI부터 신형 GTI

와 GTI 클럽스포츠에 이르는 전 모델을 소개하며 골프 GTI의 40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했다.

뿐만 아니라 GTI 축제 기간 동안 폭스바겐 견습생들은 특별한 골프 모델을 공개했다. 초비카우 팀에서는 골프 R 바리안트 퍼포먼스 35를, 볼프스부르크 팀에서는 400마력의 골프 GTI 하트비트 모델을 선보이며 골프 GTI 40주년 기념 모델의 감성을 살렸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중인 골프 GTI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생산전략인 MQB(Modular Transverse Matrix 가로배치엔진용 생산 모듈)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모델이다.

다이내믹 세단 올 뉴 알티마, 아시아 최초 한국 출시

한국닛산(대표: 타케히코 키쿠치)은 다이내믹 세단 올 뉴 알티마(All New Altima)를 수입 중형 세단 최초 2천만원대 가격에 국내 출시했다.

아시아 최초 한국에 출시된 올 뉴 알티마는 파워트레인, 안전 및 편의 사양에 따라 총 4가지 트림(2.5 SL 스마트/SL/SL 테크 및 3.5 SL 테크)으로 구성된다. 판매 가격은 2,990~3,880만원. (VAT 포함, 개별소비세 적용)

올 뉴 알티마는 디자인, 첨단 안전 사양, 다이내믹 성능 등 차량 전 부분에 걸쳐 풀 체인지급 변화를 이뤘다. 여기에 공인 복합연비 13.3km/ℓ를 기록, 국내 출시된 2,000cc 이상 가솔린 모델 중 최고 연비를 자랑한다.

먼저, 올 뉴 알티마 2.5 SL 스마트(SMART)는 2,990만원으로 프리미엄 수입 가솔린 세단 최고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상품성도 단연 최고다. LED 헤드램프, 원격시동

시스템, 저중력 시트(운전석 8방향/조수석 4방향 파워 시트), 보스 오디오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 편의 사양은 물론, 탑승자 식별 센서가 포함된 닛산 어드밴스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 등 안전성까지 견비했다.

풀 옵션 2.5 SL은 3,290만원으로, 7인치 터치 내비게이션과 선루프가 기본 장착된다. 이는 2009년 국내 알티마 첫 도입 시 책정한 3,690만원보다 400만원 낮아진

가격이다.

첨단 안전 사양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2.5 SL 테크(Tech. 3,480만원) 및 3.5 SL 테크(Tech. 3,880만원)를 주목해 볼만하다. 동급 최초 전방 충돌 예측 경고 시스템(PFCW, Predictive Forward Collision Warning) 탑재는 물론, 전방 비상 브레이크(FEB, Forward Emergency Braking), 후측방 경고 시스템(RCTA, Rear Cross Traffic Alert),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BSW, Blind Spot Warning),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ICC, Intelligent Cruise Control) 등 최고급 안전 기술이 집약됐다.



**KEN-
BLOCK**

www.kenblockkorea.com

켄블락코리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9-7
대리점문의처 : 031-332-4455 / golf911@nate.com

BEYOND URBAN SPIRIT

BORN IN KOREA

“컬러에 놀라고 성능에 반하다”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이크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TEL 02-401-7054

Balance Renovation

구입문의 1800-4690

REXY



SBS Golf
공식파트너십 체결

비거리를 위한 혁신
Performance Balance Socks

01 아치 서포트

양말 바닥의 특수소재가 하체를 견고하게 잡아줌으로 몸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02 정확한 임팩트

하체를 견고하게 안정시켜 편안한 어깨 회전으로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

03 스웨이 방지

바닥의 좌,우측 특수 소재가 발의 미끄러짐과 뒤틀림을 방지하고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www.rexysport.co.kr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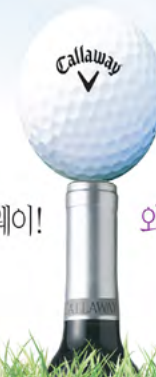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EASY WINE CO., LTD T. 02. 308. 2134